

# 현안과 과제



2014년의 희망은 '일자리 증가'  
-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 상승

## 요 약

### □ 2014년의 희망은 '일자리 증가' -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 상승

#### ○ 2014년의 희망은 '일자리 증가'와 '높은 수출 경쟁력'

- 2014년 우리 경제의 희망요인은 '일자리 증가', '높은 수출 경쟁력' 등
  - 국민들은 일자리 증가(31.7%)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, 높은 수출 경쟁력(25.0%), 주식·부동산 시장 회복(22.6%) 등을 우리 경제의 희망요인이라고 응답
- 정부는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'서민물가 안정', '일자리 확대 지원'을 더욱 강화해야
  -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응답자의 38.4%는 '서민물가 안정'을, 27.3%는 '일자리 확대 지원'을 요구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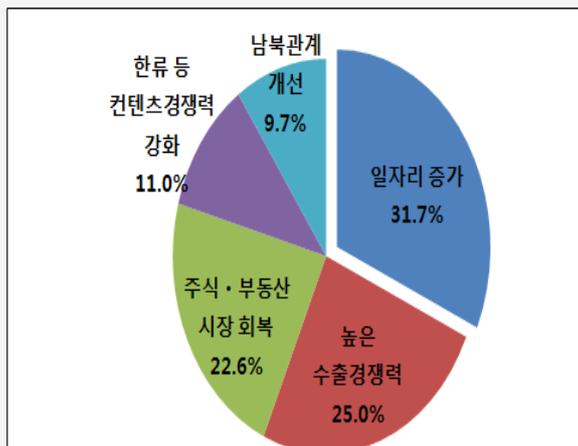
#### ○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 증가

- 2013년 12월 현재,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됨.
  - 남성의 행복감이 하락한 반면, 여성은 소폭이나마 향상되어 격차가 더 벌어짐
  - 연령별로는 20대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며, 6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의 결과로 추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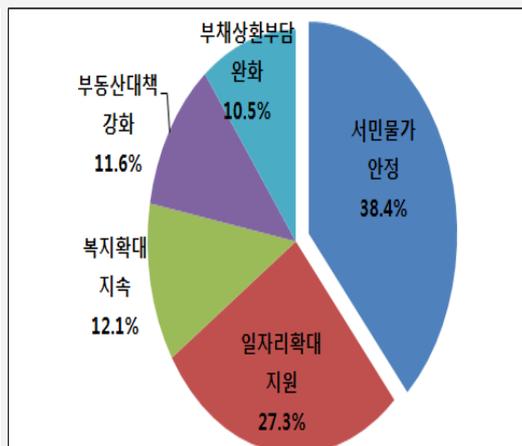
#### ○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, 자영업자가 가장 낮음

-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며, 자영업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음. 기혼보다는 미혼의 행복감이 높았음.
  - 직업별로는 전문직(60.0)과 공무원(55.6)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월등히 높았고,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음

< 2014년 우리 경제의 희망 요인 >



< 2014년 주력해야 할 정책 >



## 1. 2014년의 희망은 '일자리 증가'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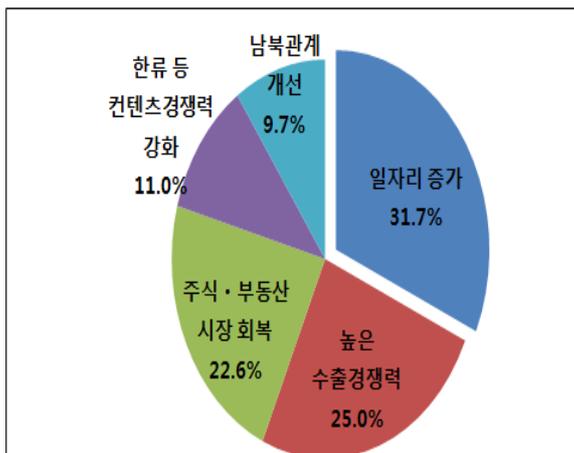
○ 국민들은 '일자리 증가', '높은 수출 경쟁력', '주식·부동산 시장 회복'을 2014년 한국경제의 희망요인이라고 응답

- '2014년 경제의 가장 큰 희망요인'을 물어본 결과, 31.7%는 '시간제 등 일자리 증가', 25.0%는 '높은 수출 경쟁력', 22.6%는 '주식·부동산 시장 회복'을 2014년 우리 경제의 희망 요인이라고 응답함
- 이외에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11.0%, 남북한 관계 개선은 9.7%가 희망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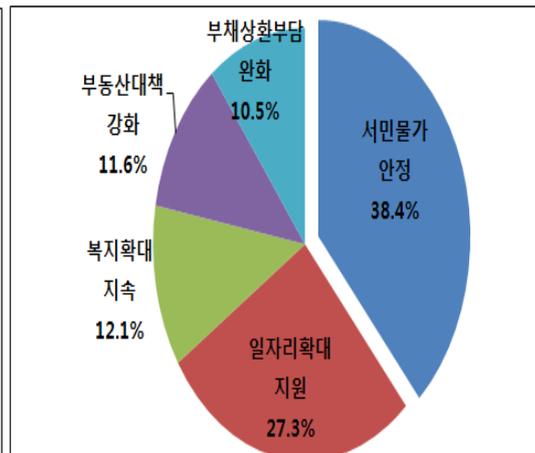
○ 국민들은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'서민물가 안정', '일자리 확대 지원'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

-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경제 정책을 질문한 결과, 전체의 38.4%는 '서민물가 안정', 27.3%는 '일자리 확대 지원'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
-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등 '복지확대 지속'은 12.1%, '부동산 대책 강화'는 11.6%, 그리고 '부채 상환부담 완화'는 10.5%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경제 정책이라고 응답

< 2014년 우리 경제의 희망 요인 >



< 2014년 주력해야 할 정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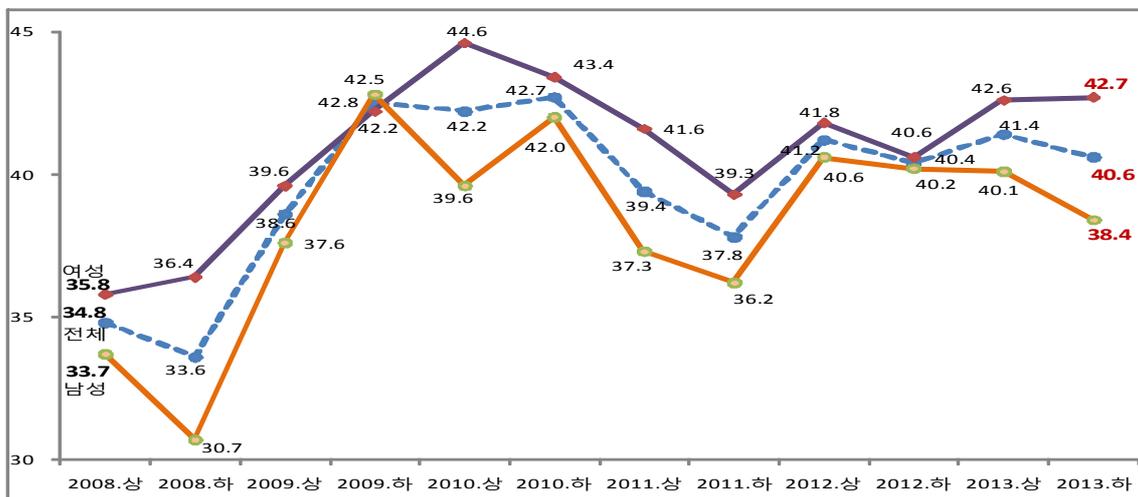


1)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21일까지 6일간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,008명을 전화 설문했으며 오차범위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09임.

## 2.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 증가

- (추이) 여성과 60대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었으며, 경제적 행복지수는 작년 하반기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40.6으로 소폭 하락했으나,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을 짐작해보는 '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'는 63.1로 소폭 상승
- 2013년 상반기 조사에서 41.4로 상승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3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0.8p 하락
  -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3년 하반기 물가 안정,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치 달성 등 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함
- 남녀별로 보면, 여성의 행복지수가 42.7로 전기대비 0.1p 상승한 반면, 남성은 전기대비 1.7p 하락한 38.4를 기록
  - 이에 남녀 간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도 4.3p로 12회의 2.5p보다 확대됨
- 연령별로 보면, 그동안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던 60대 이상이 전기대비 6.7p 높아진 40.1을 기록하였는데,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0을 넘어선 것은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6개월만임
- 2014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63.1로 전기대비 0.2p 상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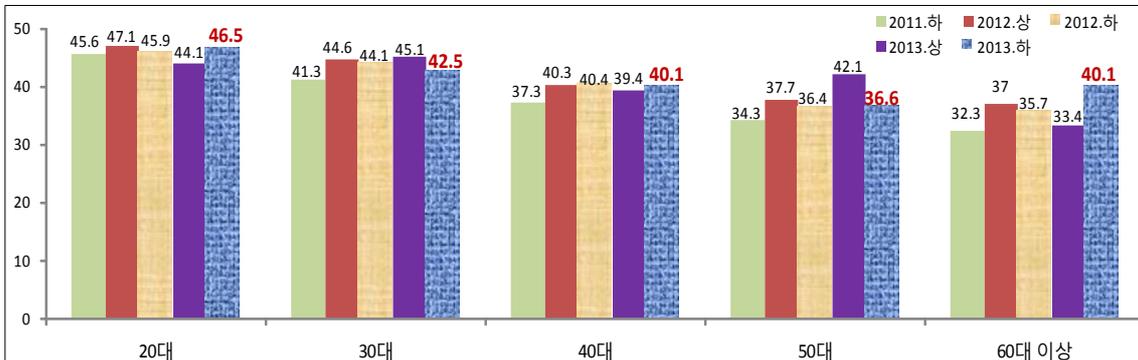
<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>



○ (연령별) 20대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며,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크게 개선됨

- 6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3년6개월만에 40을 넘어서며 크게 개선
  -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로 전기대비 2.4p 상승한 46.5를 30대는 2.6p 하락한 42.5를 기록
  - 한편, 가장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던 60대 이상이 전기대비 6.7p 높아진 40.1을 기록하였는데,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0을 넘어서는 것은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6개월만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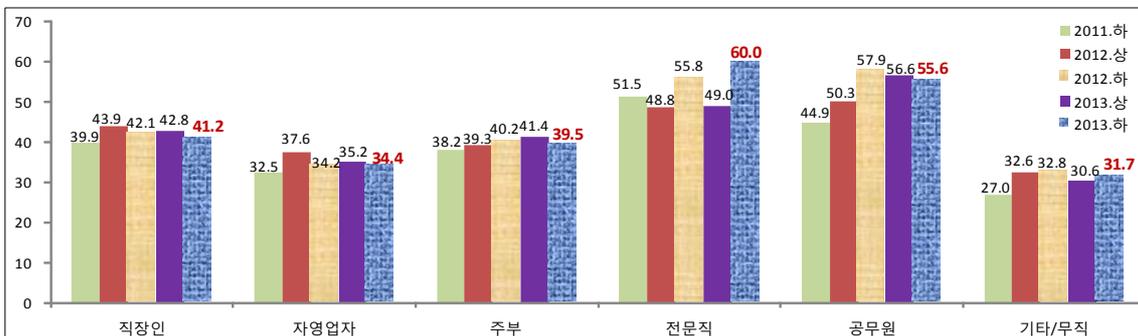
<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○ (직업별)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, 자영업자가 가장 낮음

- 전문직,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, 자영업자가 가장 낮으며, 주부, 직장인, 자영업자 등은 전기대비 하락함
  - 2013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전문직 60.0, 공무원 55.6이며, 가장 낮은 직업군은 기타/무직 31.7, 자영업자 34.4으로 나타남
  - 특히, 주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1.9p로 최대폭으로 하락하였고 직장인도 1.6p, 자영업자도 0.8p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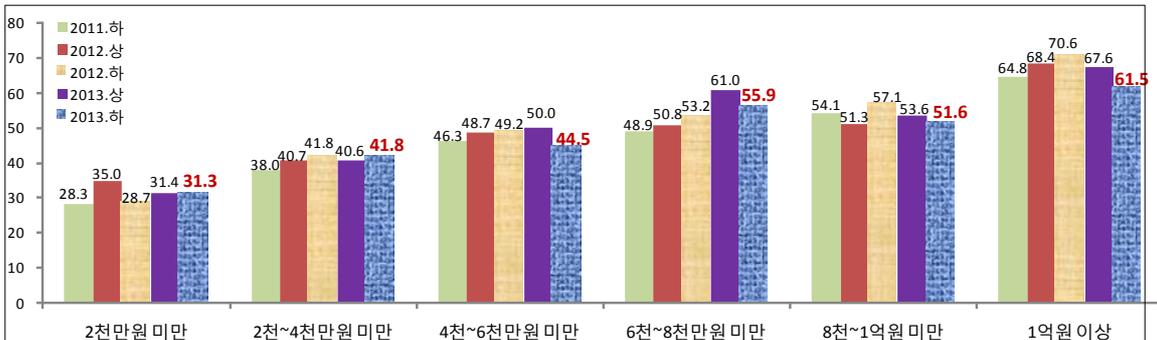
<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>



○ (소득별) 고소득층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보다 크게 높음

- 6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50 이상으로 평균보다 크게 높음
- 소득별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소득층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61.5를 가장 낮은 소득층은 2천만원 미만으로 31.3을 기록함. 이들 간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는 30.2p로 약 2배에 달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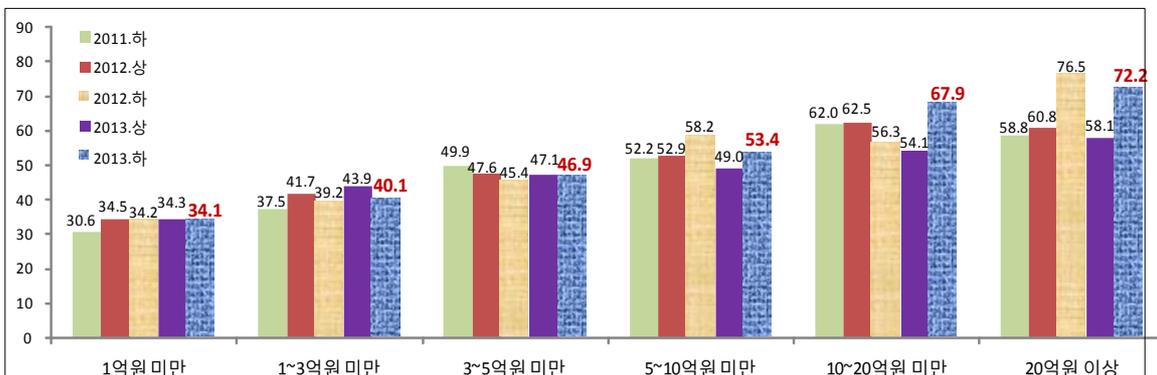
<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○ (자산별) 고액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예측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

-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는 높고 전기대비로도 크게 상승
- 경제적 행복지수는 자산이 많을수록 높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는데 20억원 이상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72.2로 가장 높았고, 1억원 미만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34.1로 그 격차가 2배가 넘었음
- 특히, 자산을 5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모두 50 이상으로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전기대비로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

<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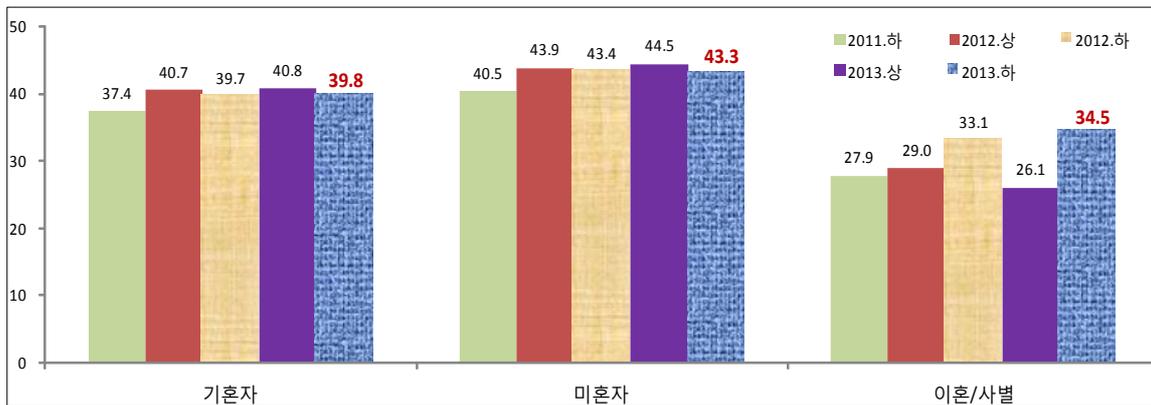


○ (혼인 상태별)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경제적 행복지수가 소폭 하락했고  
기혼자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짐

-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기혼자보다 높았음

-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1.2p 하락했지만 43.3으로 가장 높았고, 기혼자는 39.8로 전기대비 1.0p 하락했고 평균보다도 낮았음

<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○ (미래 경제적 행복) 2014년 상반기에 대한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63.1로 0.2p 상승

- 2014년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, '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'는 6개월 전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됨

-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0.2p 상승한 63.1을 기록하면서 2014년 상반기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 2013년 하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

<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 추이 >

	2009. 하반기	2010. 상반기	2011. 상반기	2011. 하반기	2012. 상반기	2012. 하반기	2013. 상반기	2013. 하반기	2014. 상반기
남 성	69.9	71.4	70.3	61.0	57.4	57.8	63.0	61.0	60.4
여 성	74.1	74.8	76.9	68.7	67.9	63.1	65.6	64.8	65.8
전 체	72.1	73.2	73.8	64.9	62.8	60.5	64.3	62.9	63.1

주 : 금번 조사부터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.

### 3. 시사점

-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
  - 첫째,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감 개선이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,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지원이 필요함
  - 둘째, 우리 국민들이 '일자리 확대'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만큼, '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'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도 주력해야함
    - 실업자를 사전에 방지하고,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정규·안정화될 수 있도록, '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서비스'를 강화
  - 셋째,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'물가 안정'을 꼽은 만큼, 체감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야 함
    -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전기·가스·수도 등 공공요금, 대중교통 요금,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상 시기 분산 등이 필요함
    - 또한,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'상품 바우처'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

□ 총	괄	:	한 상 완	경제연구본부장	(2072-6230, swhan@hri.co.kr)
□ 작	성	:	김 동 열	기업정책연구실장	(2072-6213, dykim@hri.co.kr)
			조 호 정	선 임 연구원	(2072-6217, chjss@hri.co.kr)

## <별첨> 경제적 행복지수 개요 및 응답자 특성

### 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

-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, 의식,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
-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(Economic Happiness Index)로 명명

### ○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

-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, 우리나라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·사회 정책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
-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

### 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

-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,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,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

### <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>

		이론 및 근거	내용
①	경제적 안정 지수	Maslow(1934) Need theory	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
②	경제적 우위 지수	Frank Robert(1986)	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
③	경제적 발전 지수	Daniel Kahneman(1979) Prospect theory	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
④	경제적 평등 지수	Veenhoven(2006) Inequality-Adjusted Happiness	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
⑤	경제적 불안 지수	Okun(1976) Misery Index	물가,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

- 경제적 행복지수(EHI)는 '5개 하위지수' 와 '전반적 행복감'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
-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, 중립 50점,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
-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.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
-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,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, 보통이다 50점,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
-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, 중간값 50점임

$$EHI = \frac{\frac{\textcircled{1} + \textcircled{2} + \textcircled{3} + \textcircled{4} + \textcircled{5}}{5} + \textcircled{6}}{2}$$

○ (경제적 행복 예측<sup>2)</sup>)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,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

-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
- ‘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’ 에 대하여 질문하여, ‘그렇다’와 ‘아니다’의 비율의 차를 2로 나누고 50을 더하여 계산. 5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임 (BSI 산출방식과 동일)
- 예로써 ‘예’가 60% 이고 ‘아니오’가 40% 이면  $60 - 40 = 20$ 을 2로 나누면 10에 50을 더하여 60이 지수가 됨
-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, 중간값 50점임

2)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회부터 12회까지 200점 만점으로 계산되었지만 13회 조사(2013년 하반기)부터 비교의 편의성 등을 위해 100점 만점으로 계산함.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

구분		질문	답변
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	① 경제적 안정	나(또는 귀댁의 가장)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.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.	(1)그렇다 (2)반반이다 (3)아니다
	② 경제적 우위	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.	
	③ 경제적 발전	나의 소득,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.	
	④ 경제적 평등	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.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.	
	⑤ 경제적 불안	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.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.	
⑥ 전반적 행복감		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.	
경제적 행복 예측		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.	(1)예 (2)아니오

○ 응답자 특성

구분	성별		연령별					결혼유무		
	남	여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기혼	미혼	이혼/사별
명	506	502	125	240	261	253	128	759	239	10
%	50.2	49.8	12.4	23.8	25.9	25.1	12.7	75.3	23.7	1.0

구분	직업별						소득수준별					
	직장인	자영업	주부	전문직	공무원	무직/기타	2천만원 미만	2천~4천만원 미만	4천~6천만원 미만	6천~8천만원 미만	8천~1억원 미만	1억원 이상
명	529	164	164	3	87	59	296	415	197	65	19	13
%	52.5	16.3	16.3	0.3	8.6	5.9	29.4	41.2	19.5	6.4	1.9	1.3

구분	자산규모별						학력별			
	1억 미만	1억~3억	3억~5억	5억~10억	10~20억	20억 이상	중졸	고졸	대졸	대학원 이상
명	381	372	142	77	17	8	64	257	613	74
%	37.8	36.9	14.1	7.6	1.7	0.8	6.3	25.5	60.8	7.3